

러시아 극동지역 수출 주도적 발전 전략에 대한 SWOT 분석*

이리나 코르군**, 김민수***

목 차	
I. 서론	3. 기회
II. 본론	4. 위협
1. 강점(수출 잠재력)	5. 시사점
2. 약점	III. 맺음말

| 논문요약 |

본 논문에서는 러시아 국가 아젠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극동지역 발전과 관련된 상황을 SWOT 분석 방법을 통해 살펴본다. 러시아 극동지역 발전을 위한 모든 프로그램들은 대개 수출 주도적 발전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수출이 제조업 발전을 촉진시키고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적어도 현재와 같은 방법으로 추진되는 러시아 극동지역 발전 시나리오는 최적의 것이 아니라고 본다.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극동지역은 보다 더 자원 의존적인 지역이 되어 에너지 자원 수출에 편중된 지역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러시아 극동지역은 면적이 대단히 넓은데, 역내 지방들의 경제 활동이 고르게 발전되어 있지 않아 지역 전체적으로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기가 어렵다. 극동지역 내 지방들은 보유 자원의 유형, 기후 조건 그리고 지리적 위치 면에서 서로 커다란 차이가 있다. 일부 지방들은 해외 수출에 좋은 지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다른 일부 지방들은 그렇지 못하다. 또한 교통

* 이 논문은 2009년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NRF-2009-362-B00005).

**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HK연구교수.

***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HK교수.

인프라도 무역을 활성화시켜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기에는 불충분한 상황이다. 게다가 포스트소비에트 시기 정부의 제조업 지원 중단으로 극동지역의 제조업은 많이 쇠퇴한 상태이다. 그리고 자원 수출에 따른 수익에도 불구하고 극동지역의 모든 지방들이 연방정부 재정 지원 의존도가 극히 높은 상황이다. 극동지역 지방 정부들은 재정이 부족하여 한편으로는 독자적인 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데 커다란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서로 비생산적인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런 내부적인 제약 요인 이외에 국제 환경에서도 극동지역 발전에 제약이 되는 요인들이 있다. 러시아 극동지역이 위치하고 있는 아시아 지역은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한 곳이다. 제조업 분야뿐 아니라 자원 수출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러시아가 자원을 많이 보유하고 있지만, 아시아의 모든 국가들이 러시아로부터 자원을 구매하려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극동지역의 수출은 이웃한 중국, 한국 그리고 일본에 심하게 편중되어 있다.

현존하는 여러 가지 장애를 극복하고 수출 주도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행 발전 모델보다 좀 더 유연하고 다양화된 프로그램, 내수를 고려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리고 극동지역의 아시아 지역으로의 통합은 경제 분야에서 뿐 아니라 문화와 과학 분야에서도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극동지역의 감소되는 인구 상황을 고려하여 고부가가치 산업 발전에 집중하는 것과 서비스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수립한 정책을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중도에 폐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 주제어: 러시아 극동지역, 아시아, 경제 발전, 수출 촉진, 통합

I. 서론

러시아 연방정부는 지역 균형 발전,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 아태지역에서의 경제적 입지 강화 등을 목표로 극동지역 발전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극동지역 발전의 목표가 분명히 설정된 것과는 달리 목표 달성의 방법은 아직도 구체적인 조치로서의 성격보다는 다양한 실험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현재 러시아 연방정부의 극동지역에 대한 시각은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과거에는 극동지역을 아시아에서의 러시아 영토 수호에 일차적인 의미를 가진 전략적 전초기지로 보던 시각이 변하여 이제는 극동지역을 급속히 발전하는 아시아 지역에서의 중요한 경쟁 자산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이런 새로운 시각을 바탕으로 극동지역의 수출 잠재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것은 수출을 통해서만 지난 20-30년간 아시아 국가들이 상호 교역과 유럽 및 미국과의 수출입을 통해 구축해 놓은 아시아 지역 생산 체인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정부가 극동지역, 특히 블라디보스톡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점은 2012년 9월에 개최된 APEC 정상회담 및 최근에 이루어진 국가 지도자들의 연설 및 선언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특히 푸틴 대통령은 연방회의 연설에서 러시아 극동지역 국민들의 삶이 보다 편안해지도록 하는 것을 과제로 제시했고, 이를 위해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여 지역을 발전시킬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메드베데프 총리도 러시아가 국제 생산 체인에 포함되는데 일조하는 기업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국가 지원 제도를 재검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 극동지역 또는 극동연방관구(FEFD)개발을 위한 연방정부 프로그램¹⁾들은 수출이 이 지역 발전의 핵심이 될 것이라는 기대에 근거하고 있다. 그런 점은 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을 발전시키고 동시베리아-태평양 송유관을 건설하여 최종적으로 러시아 극동지역을 아태지역에 편입시킨다는 이 프로그램들의 목표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신문이나 보고서 등 극동지역 개발과 관련된 자료들에서 연방정부 프로그램이 너무 심하게 수출 지향에 편중되어 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따라서 그런 발전 노선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들 수 있다. 진정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요 지표들의 양적 성장뿐 아니라, 경제 구조 개선 및 외부 충격에 대한 저항력 증가 등 질적 성장도 필요하기

1) 극동을 포함한 시베리아 전 지역 개발을 위한 기본 프로그램으로 옐친 정부 때 마련된 '1996-2005 극동 · 자바이칼 지역 경제 · 사회 개발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이후 2010년까지 시행기간이 연장되었으며, 2007년에는 이 프로그램을 수정한 '2013년까지의 극동 · 자바이칼 지역 경제 · 사회 개발 프로그램'이 발표되었다. 이후 2009년 말에 '2025년까지의 극동 · 부랴트공화국 · 자바이칼지방 · 이르쿠츠크주 사회 · 경제 발전 전략'이 수립되었다.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극동지역의 수출 주도적 발전의 가능성을 여러 측면에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극동지역 발전 전략의 기반이 되는 극동지역 수출 및 수출용 생산 분야 발전 문제를 SWOT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수출 지향적 발전에 유리한 조건과 불리한 조건을 살펴보고 몇 가지 시사점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SWOT 분석은 알버트 험프리에 의해 고안된 전략 개발 도구로 기업의 내, 외부 환경을 분석하여 강점과 약점, 기회, 위협이라는 네 가지 측면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경영전략을 수립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제안된 이후 적용 영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며, Helms and Nixon(2010, 215-217)이 지적하는 대로, SWOT 분석 적용 영역은 기업을 넘어서 다른 분야 또는 국가정책에까지 확장되었다. 한국에서도 국가 과학기술 정책과제 선정, 정보통신 표준화 전략 개발 등 국가정책 수립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발전전략 개발 및 정당 대선주자 선거전략 분석에도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널리 활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련의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Mintzberg(1994)는 SWOT 분석을 통한 계획 수립 방법은 아직 그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며, Hill and Westbrook(1997)는 몇 개 영국 기업의 기획 방법을 조사한 뒤, SWOT 분석은 그 결과가 단순한 사실의 열거에 불과하기에 전반적으로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런 지적이 타당한 점도 있지만 전반적인 상황을 조망하여 이해하고 상세한 연구가 필요한 방향을 찾아내는 데에는 SWOT 분석이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강점과 약점, 기회, 위협이라는 네 가지 요인들 간의 내적 관계도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하여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협 측면을 규정한다는 SWOT 분석의 일차적인 목표는 러시아 극동지역의 수출 주도적 발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조망해보는데 유용한 도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러시아 극동지역에 대한 SWOT 분석이 시도된 적이 없으므로 본 논문은 새로운 시각으로 극동지역을 조망하여 극동지역 발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파악해 봄으로써 새로운 방법으로 극동지역을 연구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러시아에서는 극동지역에 대한 관심이 시대별로 심하게 변해온 탓에 지역 발전 전략이 일관성을 가질 수 없었고, 이런 상황은 학술 연구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극동지역 개발 프로그램이 국가적으로 활발하게 수행되는 시기에는 러시아 학계의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그렇지 않은 시기에는 극동지역 학자들만 그에 관심을 보여 왔다. 그런 맥락에서 소련시절에는 극동지역의 경제적, 산업적 발전 문제는 특별히 그 문제를 다루는 연구에서뿐 아니라 소련 내 경제지역 구획 및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연구 문헌들에서도 폭넓게 다루어졌다. 그런 문헌들 가운데 가장 크게 주목 받은 것은 그란베르그(A.Г. Гранберг)의 연구였다.

물론, 극동지역이 중앙으로부터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전략 시설이 많이 배치되어 있었다는 점도 극동지역 경제문제 연구에 여러 가지 제약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블라디보스톡의 경우 외부인의 출입이 금지된 폐쇄도시였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소연방 붕괴 후 러시아가 과도기를 겪은 1990년대에 러시아 연방정부는 극동지역에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고, 그 결과 극동지역은 마치 '버려진 땅'처럼 여겨져 극동지역의 경제문제는 지역 내 학자들만 연구하였다. 게다가 극동지역 학자들도 자신이 거주하는 지방의 문제에만 관심을 두었으며, 블라디보스톡, 하바롭스크, 야쿠츠크와 같이 과학센터가 설치된 곳에서만 연구가 이루어졌다.

반면, 오늘날에는 연방정부의 관심 증대와 더불어 극동지역의 산업, 인구 상황, 교통 발전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테르스키(Терский М.В.)를 비롯한 소수의 전문가들 외에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는 국제경제 변화 경향이나 아시아 경제발전 방향에 집중되고 있으며, 학자들은 주로 자본집약적 중공업 중심의 소비에트식 산업화 모델로 인한 러시아적 한계를 지적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종종 극동지역 학자들이 기계 제작이나 선박 건조의 비중이 감소하는데 따른 지속적인 산업 잠재력 저하에 주목하고 다양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학자들의 제안은 시스템 낙후, 재정부족, 전 세계 생산 분야의 지각변동 등 개관적인 이유로 실현되기 어려운 것들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러시아가 아시아 경제 공간에서 상당한 지위를 점하겠다는 설정한 목표를 아시아 지역 맥락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어 본 논문에서 극동지역 수출 지향적 발전 과정의 새로운 측면들을 제시하고 새로운 각도에서 목표 달성에 장애가 되는 기존의 문제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러시아 극동지역은 무엇보다 풍부한 자원으로 해외의 주목을 끌어들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북극 빙산이 녹는 것과 맥을 같이 하여 북극해로의 물류 중심지로서의 극동지역 가치에 대한 관심이 일고 있다. 특히 지리적으로 인접한 경제 강국인 중국, 한국, 일본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상품의 잠재적 시장, 안정적인 자원 공급원, 그리고 유럽으로의 상품수송에 필요한 잠재적인 교통 중심지로서 극동은 한국의 산업 및 경제 성장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다. 따라서 바로 그런 요인들이 극동지역 경제 발전 문제를 다룬 한국 학자들의 논문에서 자주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 학자들의 연구는 러시아의 국가적 이익이라는 측면에서 극동지역 경제문제를 다룬 것이 아니므로, 이 문제에 대한 러시아적 시각이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러시아적 시각에서도 한국적 시각에서도 극동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수출 발전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새롭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태지역 국가들을 하나로 묶고 있는 것은 교역관계이며, 바로 그것이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II. 본론

러시아의 극동지역은 소련방 붕괴 이후 제조업 기반이 무너지고 생활 수준이 하락하여 인구가 급격히 유출되는 등 일련의 위기를 겪었다. 목재나 어류 등 수익이 나는 분야에서도 수출업자들이 주변 국가들에 불법적으로 매도하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다. 연방정부로부터 충분한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고 수출 관세 수입도 적었던 점이 과도기에 지역 경제를 정체시킨 주된 요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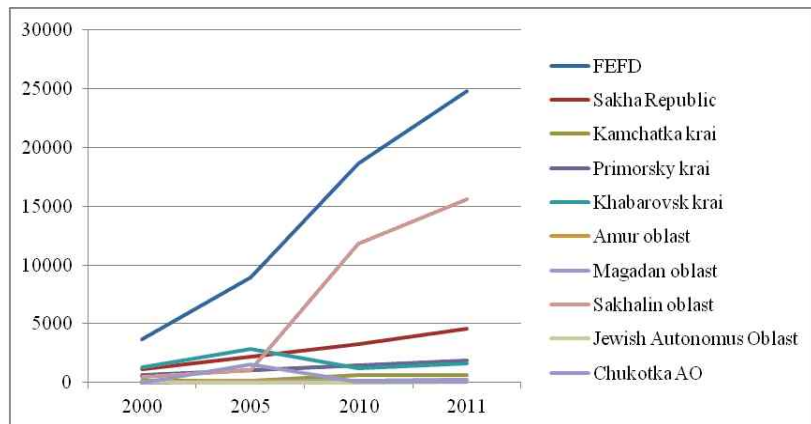
<그림 1> 극동연방관구(FEED)

출처: <http://freelance.ru/users/andreychan/?work=402121>. (2013년 1월 10일 검색)

러시아의 경제상황이 안정되어 연방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지원이 증가된 오늘날 극동지역 경제에서 수출로 인한 수입이 상대적으로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2010년 극동지역 지방총생산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8%로 러시아 평균치에 거의 근접하는 수준이었다. 사할린주의 경우에는 그 비중이 거의 73%에 달했다. 극동지역 내 여타 연방주체의 지방총생산 대비 수출 비중은 사하공화국 25.6%, 캄차트카 변경주 19.6%, 연해주 9.2%, 하바롭스크 변경주 10.6%, 아무르주 2.7%, 마가단주 5.6%, 유태인 자치주 0.8%, 추코트카 자치구가 2.9%였다.²⁾

2) <http://www.gks.ru/dbscripts/cbsd/dbinet.cgi?pl=7000004> (2013년 3월 20일 검색)

2000년 이후 극동지역은 해외 화물 수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0년에서 2012년 사이에 극동연방관구의 누적 수출량은 5배 이상 증가했으며, 연해주와 사할린주가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다. 사할린주의 경우에는 2000년 425백만 달러 수준에서 2010년에는 110억 달러로, 2011년에는 156억 달러로 증가했다. (그림 2) 한국과 일본으로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인프라 건설이 완료된 것이 주된 이유였으며, 그 외에도 국제 금융위기 이전까지 에너지 가격이 상승세를 유지했던 것도 사할린 주 수출 증가에 큰 역할을 했다. 극동지역 내 여타 지방들의 수출은 보다 완만한 성장세를 보였으며, 연해주의 경우에는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연결되는 항구가 위치한 덕분에 보다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그림 2> 극동연방관구 소속 지방들의 수출량 변화

출처: 러시아연방 통계청 자료를 필자가 재구성한 것임

2010년 이후 국제 금융위기의 여파로 아시아 시장이 침체되면서 극동 지역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극동지역의 학자들 (Tersky 2010, Domnich 2011)은 최근 몇 년간 극동지역의 제조업이 보다 강한 자금자족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 경제는 전반적으로 내수 시장에 집중하고 있으며, 내수 시장의 주요 수요는 전략 및 군사 분야에 대한 정부 수요이다. 그러나 그 규모도 그리 안정적이지 않아 제조업을 효과적으로 유지하기에는 불충분하며 장래를 예측하고 계획을 세

우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그런 구매 수요는 국제 시장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며, 과거에 대량 생산이 불가능한 자본집약적 분야에 의존했던 구조가 반복되는 양상이다. 이런 점에서 극동지역을 아태지역에 통합시킨다는 연방정부의 목표는 다소 무모해 보이기도 한다. 수출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그런 목표 달성이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해외 수출은 극동지역 생존에도 필수적이다. 극동지역의 러시아 내 다른 지역들과의 교역이 미미하기 때문이다. 구세프(A. Гусев)도 러시아 내 지방 간 교역에 관한 연구에서 극동지역 지방들의 러시아 내 다른 지방들과의 교역이 미미하다고 지적했으며, 그런 상황의 주된 원인은 러시아 전환기에 소비 패턴이 바뀐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1990년대 초 극동지역은 생산물의 19%를 자체 소비하고 75%를 러시아 내 다른 지방에 수출했으며, 약 6%를 해외로 수출했다(Измаев 2001). 그 후 약 20년 동안 상황이 완전히 변했다. 2009년에는 극동연방관구 생산품의 0.28%만이 러시아 내 다른 지방으로 수출되었는데, 그것은 극동연방관구 지방총생산의 약 0.45%에 해당되는 규모였다. (표1) 실상 극동지역 내 지방들 간 상호 교역도 커다란 역할을 하지 못한다. 구세프에 따르면, 극동연방관구 내 지방들은 생산품의 1.33%만을 관구 내 다른 지방에 수출했는데, 그것은 극동연방관구 지방총생산의 2.12%에 불과한 수준이다.

<표 1> 러시아 연방관구들의 국내 교역 구조

No	명칭	타 연방관구로 수출된 상품		해당 연방관구 내 타 지방으로 수출된 상품	
		수출상품 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율, %	연방관구 GRP에서 차지하는 비율, %	수출상품 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율 %	연방관구 GRP에서 차지하는 비율, %
1	중앙연방관구	13.94	3.37	27.57	6.66
2	북서연방관구	15.15	12.29	3.76	3.05
3	남부연방관구	4.89	6.80	1.50	2.09

4	북카프카즈연방관구	1.82	6.31	0.16	0.55
5	불가연방관구	13.36	7.50	5.19	2.91
6	우랄연방관구	2.09	0.15	1.38	0.10
7	시베리아연방관구	3.26	2.66	4.31	3.51
8	극동연방관구	0.28	0.45	1.33	2.12
	합계	54.8		45.2	

출처: A. Gusev «Торговая» угроза территориальной целостности России/ Капитал Страны(<http://www.kapital-rus.ru/articles/article/194876/>). (2013년 1월 15일 검색).

이제 극동지역 수출 발전이라는 연방정부의 전략적 목표 달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SWOT 분석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1. 강점 (수출 잠재력)

러시아 극동지역³⁾이 유리한 지리적 입지와 풍부한 천연자원을 갖춘 곳임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지역은 육지에서는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중국과 접경하고 있고 바다에서는 일본과 접경하고 있으며, 동아시아의 주요 경제국가인 한국과도 멀지 않다. 또한 이 지역의 항구들은 아태지역의 거의 모든 국가들과 해로로 연결되어 있다. 이 지역의 자원 잠재력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어 자세한 설명이 필요 없지만,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천연자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극동연방관구가 매력적인 교역 파트너가 되고 있지만, 지역 경제가 가진 다양한 약점 때문에 그 매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3) '지역'이라는 용어는 지리적으로 인접한 몇몇 국가나 지방을 지시하는 등 다양한 의미로 사용된다. 여기서는 아시아 또는 아태지역에 포함되는 러시아 영토 내 극동지방을 지리적인 의미에서 '극동지역'이라 칭한다. 따라서 '극동지역'은 행적적인 의미에서는 러시아연방 '극동연방관구'와 동일한 개념이 된다. 그리고 '극동연방관구' 내 여러 행정단위들은 '지방'이라 칭할 것이다.

한편, 동시베리아에서 태평양까지 송유관을 건설하는 거대한 프로젝트는 향후 수출 주도적 발전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 송유관을 통해 동북아 지역 소비자들에게 러시아의 석유가 공급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송유관의 수송량은 연간 약 8천만 배럴로 계획되어 러시아 가스를 유럽에 공급하는 파이프라인의 수송량 연간 7천만 배럴보다 더 많다. 또한 러시아 가스프롬은 동시베리아-태평양 송유관 건설과 병행하여 가스파이프라인도 건설할 계획을 세우고 있기도 하다. 석유,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을 통해 극동지역에는 수출이 증가되는 등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이지만, 연해주를 비롯한 몇몇 지방만 실질적인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연해주 지역에도 에너지 공급을 위한 시스템과 LNG 플랜트 등 에너지 공급 인프라 건설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극동지역은 지리적인 이점을 살려 물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최근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북극해로가 아시아의 공급자와 유럽의 수요자를 연결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러시아 및 주변 국가들이 커다란 관심을 두고 있는데, 극동지역이 바로 그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의 '중앙일보'도 시베리아의 강들을 거쳐 유럽으로 연결되는 최단 수송로 구축 가능성에 관한 기사를 여러 차례 신기도 했다(『중앙SUNDAY』, 2013년 1월 4일). 현재 러시아의 유력 투자자들이 바다와 강의 항구, 포구 그리고 철도, 도로와 관련된 다양한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있다.

이처럼 극동지역은 자원 및 교통 서비스 공급자로서 현존하는 아태지역 노동 분업 구조에 포함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가장 중요한 과제는 부가가치 창출 체인에서 자신의 입지를 확보하는 것인데, 그 점에서 있어서 극동지역은 여러 가지 약점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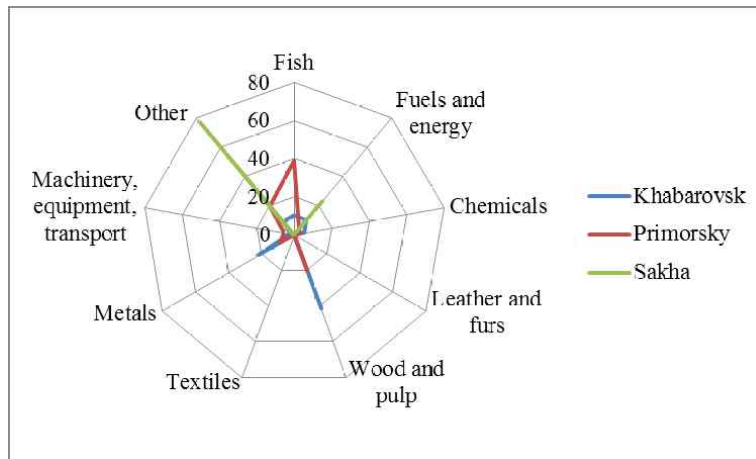
2. 약점

극동지역 내 각 지방들은 면적, 기후조건, 천연자원 보유량, 지방경제 유형 등에서 서로 차이가 크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단일한 수출 발전 전략이 수립되기 어렵다. 예를 들어, 하바롭스크 변경주는

광물자원이 풍부하고 기계제작 산업이 발달했으며, 사할린 주와 사하공화국, 자바이칼 변경주는 다이아몬드 채광, 석유가스 산업 및 어업이 발달되어 있다. 아무르 주는 농업과 목재업이 발달되어 있고 전력생산의 중심지이며, 마가단 주는 어업과 광업이 지방 경제의 중심 산업이 되고 있다. 한편, 연해주는 다른 지방에 비해 지하자원이 거의 없는 반면 대규모 수송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또 극동지역 내 지방들의 천연자원 의존도도 서로 다르다. 러시아 전체적으로 광업이 GDP의 약 12-13%를 차지하는데, 극동연방관구는 그 비중이 약 25%에 달하며, 사하공화국과 추코트카는 약 40% 이상이고 사할린 주는 약 60%인 반면, 연해주는 2%를 넘지 않는다.

따라서 극동지역 내 지방들은 보유 자원에 따라 서로 다른 유형의 지방 경제를 발전시켰고, 수출 구조도 서로 다르다. 극동지역에서 경제 규모가 가장 큰 하바롭스크주, 연해주, 사할린주의 자료를 보면, 연해주의 경우 수출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어류가 40%, 목재가 20% 정도인데 비해 하바롭스크주는 어류, 연료, 화학제품과 기계류의 수출이 미미하다. (그림 3) 한편, 사하공화국의 수출은 다이아몬드와 기타 광물자원에 집중되어 있다.



<그림 3> 극동지역 3개 주요 지방의 수출 구조, %

출처: 러시아관세청 극동지부의 자료를 근거로 필자가 재구성한 것임

이처럼 각 지방의 자원 보유 유형이 다르다는 점이 수출 발전에 문제가 되며, 그 외에도 극동지역 산업단지들 간의 연계가 결여되어 있다는 것도 문제가 된다. 그런 문제는 지방별로 특정 분야를 육성하여 지방경제를 발전시키고자 했던 과거 발전 전략의 결과로 발생한 것이다. 또 다른 이유로 소비에트 시기에 산업적 연계가 산업 중심 지방들 간 또는 소비에트 공화국들 간의 연계로 국한되어 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런데 1991년 이후 그런 산업적 연계가 단절되었고, 극동지역은 산업적 연계의 새로운 구조를 형성하지 못했다. 톰니치(2011, 147)는 기계나 장비 생산 분야 등 대규모 제조업을 지역 클러스터 또는 산업단지로 통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규모로 육성시키기 어려우며, 현존하는 생산 시설도 효율성에서 서로 차이가 크고 상호 협력도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극동지역 내 지방들 간 협력 체계 결여도 극동지역을 아태지역에 통합시키는 과정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이다. 현재 상황에서는 극동지역 각 지방이 나름대로 제조업을 육성하여 국제 시장에 진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태지역 통합이라는 과제는 극동지역 지방들이 대중 소비제품을 생산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어렵게 보인다. 실상, 극동지역 지방들은 자본집약적 중공업 분야의 기반을 갖추고 있지만, 그것을 복구하는 데는 많은 자본이 필요하다. 그런데 잘 알려진 것처럼, 아태지역 통합은 20세기 후반에 형성된 독특한 밸류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수출 지향성을 특징으로 하는데, 그 밸류체인은 부분품과 부속품, 그리고 전자산업 중간제품을 중심으로 형성된다.

비즈니스 비용이 높다는 점도 극동지역 제조업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 요인이다. 러시아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유태인자치구를 제외한 극동지역 모든 지방의 평균임금이 러시아 평균임금보다 높으며, 상트페테르부르크나 유전지역 등 자본 유동이 많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타 지역보다 30% 정도 더 높다.⁴⁾ 그리고 극동지역의 최저생계비 수준도 타 지역에 비해 훨씬 높다. 최저생계비 수준에서 러시아연방 83개 연방주체 가운데

4) http://www.gks.ru/bgd/regl/b11_44/IssWWW.exe/Stg/d01/04-18.htm. (2013년 1월 5일 검색)

추코트카 자치구가 5위, 마가단주가 6위, 사할린주가 7위, 하바롭스크주가 9위, 아무르주가 14위, 연해주가 15위, 유태인 자치구가 17위이다.⁵⁾ 이처럼 최저생계비 수준이 높기 때문에 기업들이 연방정부의 지원이 없이 생산시설 건설을 포함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Леонов 2009, 132).

제조업 발전을 논하면서 숙련된 전문가와 일반 노동인력 부족 문제를 빼놓을 수 없다. 극동지역 노동인력 부족 문제는 관계, 학계, 업계에서 다양한 방식을 통해 지적한 바이지만, 여전히 지식노동자나 숙련공들이 극동지역에서 유출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Потапов и Атанов 2010, 156). 공식 인구통계 자료에 따르면, 극동지역 인구는 러시아 전체 인구의 4.4%에 해당되며⁶⁾ 2000년 690만 명이었던 인구가 2012년에는 630만 명으로 줄어들었다(The Demographic Yearbook of Russia, FSSS, 2010). 타국에서 지속적으로 극동지역으로 인구가 유입되는 상황에서도 극동지역 전체 인구수가 그렇게 줄어든 것이다. 극동지역에서 유출된 인구를 보면 상황은 더욱 비관적이다. 2000년에서 2010년까지 10년 동안 150만 명이 극동지역을 떠났는데, 그 숫자는 2000년 인구수의 20% 이상이 되는 규모이다. 이렇게 대규모로 인구가 유출된 뒤에 숙련된 고급 인력이 일했던 자리를 교육수준이 낮은 비숙련 노동자와 구소련 국가나 중국에서 이주한 노동자들이 메꾸고 있다. 그리고 이런 인구 이동의 결과로 극동연방 관구의 사회적 수준이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Вести регион, 04.11.2011). 이러한 인구변동 상황이 지속된다면, 극동지역의 1인당 사회비용이 증가하여 지방 세수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닥치게 될 것이다. 달리 말하자면, 극동지역에서 정부가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는데 너무 큰 비용이 들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극동지역 지방정부들이 이런 모든 문제를 인식한다고 해도 재정이 부족하여 결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다. 극동지역은 천연자원이 풍부한 지역이지만 연방정부의 재정지원 의존율이 극히 높은 지역이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자면, 지방정부가 창출하는 수입이 지출을 충당하기에 부족하여 연방정부 재정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세계적인 다

5) http://www.gks.ru/bgd/regl/b11_14p/IssWWW.exe/Stg/d01/05-10.htm.
(2013년 1월 5일 검색)

6) 극동지역의 면적은 러시아 전체 면적의 36.1%에 해당된다.

이아몬드 생산지인 사하공화국도 연방의 지방에 대한 전체 재정지원금의 약 10%를 받고 있다. 러시아연방 법률에 따라 천연자원 수출에 따른 수입이 연방 재정에 귀속되었다가 연방소속 지방들 간에 재분배되기 때문이다. 극동연방관구는 러시아연방의 지방에 대한 재정지원금 총액의 약 1/4을 지원받고 있다(Балацкий и Екимова 2012). 지방 재정에서 연방 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추코트카 자치구 60%, 캄차트카 변경주와 유테인 자치구 50%, 아무르주와 사하공화국 40%, 연해주와 사할린주 30%, 하바롭스크주 20% 수준이다(Горбунов и Кръжановская 2010, 69). 이처럼 자체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방정부들은 자체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려 수행하는 대신 연방의 지원을 두고 서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런 상황도 지방 정부들 간 협력을 방해하는 요소가 된다. 이와 관련하여, 그란베르그(Granberg & Pelyasov 2005)는 지방정부들이 소비에트식의 계획경제 대신 처음에는 경제 프로젝트였지만 중국에는 사회 프로젝트가 되는 투자 프로젝트를 구성하여 연방의 재정지원을 받아내는 전술을 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지방정부들의 정책과 발전 계획들은 지역 상황을 전적으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 발전 계획들은 주로 에너지분야 발전, 산업 현대화, 교통 인프라 개선, 사회인프라 투자 등의 목표를 담고 있다.⁷⁾ 지방정부가 자원 개발 산업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계획이 연방정부의 계획과 유사하다. 극동연방관구 발전을 위한 계획도 2000년 이후 연방정부 차원에서 추진된 에너지 기반 경제발전 패턴에 맞추어져 있다. 그런 발전 계획은 한편으로는 극동지역이 아태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자원 공급자가 되는데 도움을 줄 것이고 극동지역 내 정치적 통제를 강화시키는데도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런 정책은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줄 수 없다. 자본은 수익이 큰 분야로 물리개 마련이므로 제조업 육성 정책이 후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연해주와 블라디보스톡을 비롯한 극동지역과 레닌그라드주와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비롯한 러시아 북서지역에서 여러 가지 유사한 계획

7) 러시아 연방 특별 프로그램 사이트. http://www.programs-gov.ru/38_2.php (2013년 1월 22일 검색)

들이 수행되고 있다. 파이프라인 건설뿐 아니라 자동차 생산 공장 건설(상트-페테르부르크의 포드, 도요타, 현대와 블라디보스톡의 닛산, 쌍용), 항만 재건 등도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다. 또한 상트-페테르부르크가 유럽의 다이얼로그 센터로서의 위상을, 블라디보스톡이 아시아의 다이얼로그 센터로서의 위상을 가지도록 하려는 노력도 유사하다. 그러나 연방 수도에 가까이 위치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많은 계획들이 효과를 발휘하는 만큼 블라디보스톡에서도 그렇게 될지는 의문이다.

이런 여러 가지 약점을 볼 때, 자원과 지리적 위치 이외에 모든 상황이 극동지역의 수출 주도적 발전에 장애가 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극동지역은 외부 환경에서 일련의 기회 요인도 가지고 있다.

3. 기회

앞에서 제시한 자료들은 현재의 상황과 국가 정책이 극동지역을 산업 제품 공급자가 아닌 자원 공급자로서 아태지역에 포함시키려 한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준다. 그러나 극동지역이 자원 공급자로서 아태지역에 포함된다면 계속 주변에만 머물게 될 것이다. 아태지역의 ‘중심’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경제 분야도 발전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극동지역 경제 발전의 가장 전망 있는 분야 가운데 하나로 교통을 들 수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기후변화는 극동지역을 세계 교통 노선들의 중심지로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이며, 그런 환경적 기회와 지리적 이점을 적절히 활용하면 통과 화물량 증대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⁸⁾ 그리고 나아가 교통 분야 발전은 극동지역 여러 지방을 통합시키는 요소로서의 역할을 할뿐 아니라 극동지역과 러시아 내 다른 지역들과의 관계도 강화시켜줄 것이다. 또한 교통 분야는

8) 현재 교통 분야는 러시아의 경제발전을 억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러시아가 6%대의 성장률을 유지하려면 교통 인프라 증가율은 최소한 10-12%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2000년 이후에도 러시아 교통분야 연간 성장율은 1% 정도에 그쳤다. 결국 교통분야가 러시아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Регион.Бизнес.Партнер. URL:<http://www.rbp.ru/news/?uid=4702> (2013년 2월 5일 검색)).

보다 활발한 국제협력을 촉진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러시아 영토 내에 국제규모의 교통 교차점들을 구축하면 러시아는 재수출 가능성을 가지게 될 것이고 이를 위한 생산 시설도 건설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극동지역 산업분야의 잠재력은 기술이 더욱 발달하여 전 세계 생산 분야에 구조조정이 일어날 때 본격적으로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기술 진보는 노동력 부족과 고임금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고 소규모 생산 시설이 가지는 규모 경제적인 비효율성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Granberg & Pelyasov 2005).

기술 진보와 관련된 극동지역의 문제, 나아가 러시아 전체의 문제는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과 유사성이 있다. 실례로 미국에서는 ‘메이드 인 유에스에이’ 정책 차원에서 3차원 프린팅 제조 기술을 발전시켰다. 이 기술로는 카드 소프트웨어로 설계되고 프린팅된 거의 모든 제품의 예비 부품 생산 및 소모품 재생산이 가능하다. 현재 이 기술은 보석가공, 신발 원본제작, 산업 디자인, 건축, 엔지니어링, 자동차, 항공우주, 치기공 및 의료 산업, 교육, 지리정보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⁹⁾

전문가들은 이 기술의 영향으로 20세기 후반기 아웃소싱이 가져온 변화만큼 커다란 변화가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기술 진보로 인한 커다란 변화가 이루어지는 시대에 각국은 신기술을 도입하여 발전을 가속화시킬 가능성을 얻게 된다. 따라서 조만간 러시아 극동지역도 전 세계 생산 라인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보할 기회를 얻을 가능성이 있다.

산업과 서비스에서 농업과 문화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한 분야의 국제 협력도 수출 발전을 촉진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작은 국제협력 프로젝트조차 새로운 투자를 유치하는데 중요한 통합적 효과 발생에 기여할 것이다. 이미 오늘날 극동지역은 중국과 함께 중형 항공기 생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과는 선박 건조와 자동차 제작 분야에서, 일본과는

9) <http://www.engineeringnews.co.za/article/3d-printing-may-shape-a-new-manufacturing-revolution-2013-01-18>. (2013년 2월 20일 검색)

자동차 제작 분야에서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향후 극동지역은 지역의 전통적 생산 분야 및 새로운 생산 분야 발전을 통해 아시아 내에서 경쟁력을 향상시켜나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단계적인 개선이 중요하므로, 합리적인 생산 발전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발전의 초기 단계에는 자원채굴 분야에 의존할 수 있을 것이며, 그 후 교통 분야와 더불어 재수출을 통해 발전될 수 있는 산업 분야들을 전략적으로 육성, 발전시키고, 이어서 수익이 발생할 때까지 더 많은 시간을 요하는 자본집약적 산업 분야들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물론, 각 단계의 진행 과정에는 인접분야 서비스 발전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4. 위협

여기서는 극동연방관구의 수출 주도적 발전에 장애가 되는 국제환경적 요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무엇보다 먼저 언급해야 할 것이 아태지역 국가들 간의 치열한 경쟁이다. 현재 아태지역은 제조업과 무역 강국들이 위치하고 있을 뿐 아니라,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등 신흥 경제국들이 경쟁하고 있는 지역이 되었다. 따라서 역내 경쟁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생산비 절하 경쟁도 이어졌는데,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러시아 극동지역은 그런 경쟁을 감당할 상황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앞에 언급한 아태지역 국가들은 러시아 극동지역을 경쟁상대로 보지 않고 있으며, 자국에 대한 자원 공급지역 또는 자국의 제조업 상품 판매 시장으로 보고 있다. 게다가 중국의 지도부 교체에 이어 조만간 전개될 중국의 새로운 산업 전략은 아태지역 국가들 간의 경쟁을 더욱 격화시키게 될 것이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새로운 지도부가 수출 대체 효과가 있는 장비 생산 분야 등 신생 산업 분야들을 육성하는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신생분야에서 생산된 제품을 러시아에 수출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편, 극동지역이 러시아 중앙 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제품 수송비가 비싸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국에서 생산되는 장비 등 신생 산업제품이 극동지역의 수요를 만족시키는 좋은 대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

천연자원은 또 다른 극심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다. 그런데 극동지역 발전을 위한 러시아의 다양한 시나리오들은 러시아 자원에 대한 여러 나라의 수요를 전제로 하여 구성된 것으로, 러시아와 다른 자원 생산국과의 경쟁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오스트레일리아, 베트남 등은 목재를 비롯한 다양한 천연자원을 생산하고 있어 러시아 극동지역이 공급하는 천연자원을 대부분 대체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러시아의 자원공급 기업들은 아시아 시장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있고, 아시아 시장이 러시아의 입맛에 맞게 변화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입장도 아니다. 게다가 러시아 내에 아태지역의 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전문가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한편, 러시아 극동지역의 수출은 수출품목 구조면에서도 수출의 지리적 인 구조면에서도 그리 다각화되어 있지 않다. 2011년 기준으로 러시아 극동지역의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수출에서 동아시아 3대 경제국가에 대한 수출이 지배적이었고, 많지 않은 양이 인도(560백만 달러), 태국(410백만 달러), 필리핀(240백만 달러), 베트남(62백만 달러), 몽골(15백만 달러), 북한(13백만 달러)에 수출되었다. 그러나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은 의외로 작은 17%에 머물렀고, 한국과 일본에 대한 수출 비중이 각각 34%와 27%였다. 한국과 일본에 대한 수출 비중이 높은 것은 사할린 섬의 셰일 가스 프로젝트로 인한 것인데, 중국은 현재의 자국 경제상황에 비해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이 프로젝트에 아직 별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국의 비중 그리고 아마도 일본의 비중도 2012년 4/4분기 가스파이프라인 제2차 발주 이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OILCAPITAL.RU』, 2012년 4월 10일). 그러나 이 수치 너머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가려져 있다. 일부 품목의 경우, 중국으로 수출된 양이 한국이나 일본에 수출된 양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수산물의 경우 57%가 중국으로 수출된 반면 한국에 수출된 물량은 37%이며, 석탄의 경우에는 58%가 중국으로 32%가 일본으로 수출되었다. 원유제품의 경우에는 일본에 57%, 중국에 31.5%가 수출되었다.(Деваева & Котова 2010) 특히 중국과 접경하고 있는 극동연방관구 남부 지방들에서 생

산되는 목재는 거의 전량 중국으로 수출된다. 유태인 자치구 목재 수출량의 93%, 하바롭스크 변경주 목재 수출량의 41.5%, 아무르 주 목재 수출량의 32%가 중국으로 수출되었다. 또한 어류 가운데 대구의 20-30%와 청어 대부분이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다(『Stringer』, 2012년 1월 25일). 이런 경향이 지속된다면, 몇 가지 품목의 수출은 더욱 더 중국에 집중될 것이며, 러시아 측이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 안보적인 측면의 우려도 야기될 수 있다.

앞서 밝힌 것처럼, 러시아 극동지역은 수출 전략을 독자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할 자유가 없다. 그리고 그런 상황은 새로운 에너지 프로젝트들의 등장과 더불어 더욱 심화되었다. 향후에도 러시아 극동지역의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연계는 러시아의 국가차원 대외전략에 종속되는 상황이 지속될 것이다(Минакир & Деваева 2008). 한편, 역내 무역협정 체결이 러시아 극동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분야에서도 러시아는 세계화 추세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또한 연방정부가 구 소비에트 국가들과의 협력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극동지역은 그 국가들과는 교역이 거의 없는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자유무역협정이 극동지역의 아태지역 통합을 가속화 시키고 협력에 필요한 프레임을 제시해 주는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 IMEMO의 현대화 및 발전 센터 경제팀장 로고진(2007)이 지적한 바에 따르면, 러시아 연방정부는 지방 경제정책과 관련된 명백하고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통합을 포함한 정책들의 다양한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도 가지고 있지 않다(『Мировое и национальное хозяйство』, 2007). 극동지역의 아태지역 통합 과정에 앞서서 극동지역에서 다양한 제도적 발전이 이루어져야 경제 협력을 강화시키면서 유연한 통합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러시아에서는 정치적 논의를 제외하고는 지방 간 관계에 관한 실질적인 행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5. 시사점

러시아 극동지역의 현재 상황에서 제조업 생산 증대를 기반으로 하는 고전적인 수출 주도적 발전 방안은 매우 도전적인 과제이다.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들을 차치하더라도 높은 비즈니스 비용과 불충분한 인프라가 극동지역 경제발전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앞서서도 언급했던 파이프라인이 이제 거의 완공단계에 있다. 러시아가 동시베리아에서 태평양까지의 파이프라인 건설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 러시아 내에서는 일본과 한국으로의 공급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일본이 강력한 지진으로 원전 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어 현재로선 에너지 수입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게 되었고, 이런 상황은 러시아 가스 수출에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¹⁰⁾ 에너지 수출이 러시아 극동지역 발전의 기반이 될 수 있고 또 기반이 되어 주어야 한다. 경공업으로부터 시작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사항들이 있다.

첫째로 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수출 주도적 발전을 통해 가능한 한 많은 수입을 얻어야 한다는 점이다. 많은 나라들의 복지가 결국 자원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러시아가 자원 수출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모든 자원의 수출이 현재처럼 수요자가 중심이 되는 상황이 아니라 공급자가 컨트롤하는 상황이 되어야 한다. 러시아의 자원 공급자들이 연대, 협력한다면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석유, 가스, 다이아몬드 그리고 금의 수출은 정부가 통제하고 있지만, 나머지 자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상황도 적절하게 활용되어야 한다.

둘째로 극동지역 경제발전에 대한 다층적이고 구조화된 접근만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익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외국 파트너들과의 장기적인 관계는 아주 중요하지만 동시에 구축하기 쉽지 않은 것이다. 효과적인 장기적 파트너십 형성은 파트너 국가의 특성에 맞추어 접근해야 가능할 것이다. 러시아의 저명한 동북아 전문가 티타렌코(Titarenko)도 경제협력과 더불어 정치적 대화를 지속해 나가는 양면적 접근의 이점

10) <http://www.nytimes.com/2012/09/07/world/europe/at-asia-pacific-meeting-putin-focuses-on-the-far-east.html>. (2013년 2월 20일 검색)

을 주장하고 있다(Titarenko 2008, 293-294). 나아가 베트남과 인도 등 소위 ‘소련의 전통적 파트너 국가들’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셋째로 러시아 극동지역 각 지방은 상호 경쟁하기보다는 협력할 필요가 있다. 여러 지방이 협력하여 산업생산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 클러스터가 구축되면 단기적인 이익만 쫓는 기회주의적인 행태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수출을 통해서 모든 지방이 동등한 이익을 얻을 수 없지만 지방 간 산업협력을 통해 간접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넷째로 발전 계획에는 반드시 극동지역의 인구가 적다는 상황이 반영되어야 한다. 극동지역 인구 감소 추세가 가까운 미래에 반전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발전 계획은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산업분야보다는 고부가가치 상품 및 서비스 생산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다섯째로 극동지역을 산업 및 교통 공간으로 통합시킬 뿐 아니라 아시아의 문화적, 심리적 공간으로 통합시키는 정책이 절실하다. 현재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이 러시아 극동지역을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사람들은 낯선 것을 경계하기 마련이다. 아태지역 국가들은 다면적인 협력관계 구축으로 현재 과학, 교육 및 기타 분야에서의 통합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Михеев 2005, 42-44). 그들과의 관계 변화를 위해서는 심리적인 차원도 고려해야 할 이유를 거기서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스포츠와 문화가 민간외교의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극동지역에서도 활용해야 한다. 연해주와 같은 접경지역은 축구, 야구 또는 포물러-1과 같은 다양한 국제 스포츠 이벤트 개최지로 적합하다. 그런 이벤트로 관광수입을 창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아태지역 국가 국민들이 극동지역에 호감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 때문이다.

전체적으로 극동지역의 아태지역으로의 통합은 작은 발걸음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한 분야 또는 한 가지 과정에서 작은 성과를 거두고 그것을 서서히 확대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런 과정에서 현재의 입지를 보존하는 한편 상황을 좀 더 자세히 파악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방법은 다른 한편으로 외국인 파트너들이 러시아의 제조업 상황에 익숙해지는 시간을 제공할 것이다. 러시아가 짧지 않은 세월동안 아

시아시장에 진출하지 않았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정부의 의지만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민간의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경쟁국들과의 차이점을 파악하여 거기에서 강점을 찾아내는 것도 필요하다. 작은 발걸음은 아태지역 통합 패턴에도 보다 적합하다. 잘 알려진 대로, 아시아국가들 간의 통합은 상품 교역을 통한 협력보다는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에 기반을 둔 것이었다(WTO, IDE-Jetro 2011). 또한 동아시아 국가들이 발전 초기에 특정 상품 생산에 집중함으로써 자원을 절약하고 생산비를 절감하여 이익을 확대했던 경험도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수립된 계획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중도에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III. 맺음말

먼저 앞에서 살펴 본 극동지역 수출 주도적 발전에 강점, 약점, 기회와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는 요소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문제 해결에 긍정적으로 작용	문제 해결에 부정적으로 작용
내 부 환 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시아 시장에 가까운 지리적 인접성 • 풍부한 천연자원 • 지방 간 교역 보다 해외 교역이 더 빠른 속도로 성장 • 정부 지원 인프라 프로젝트로 물류환경 개선 • 에너지자원 수출용 파이프라인 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 별 기후조건, 자원 및 기술 보유 수준의 커다란 차이 • 지방 경제 유형의 다양성 • 제조업 발전 미약 • 숙련된 전문가 부족 • 지방 재정 부족 • 지방들 간 연대 협력 결여 • 높은 비즈니스 비용
	강점	약점

	기회	위협
외부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 진보로 새로운 생산 기술 등장 • 국제 협력 • 북해 항로의 연결 지점으로 서의 극동지역에 대한 관심 •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유사성에 따라 국제 투자자들의 극동연방관구에 대한 관심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시아 내의 높은 경쟁 수준 • 아시아 국가 자원이 러시아 자원공급을 대체할 가능성 • 러시아 에너지자원에 대한 수요 부족 • 수출이 중국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

러시아 연방정부는 1990년대 중반부터 극동·시베리아 개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전략을 마련하여 극동지역 발전을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유라시아 대륙 교통회랑 구축이나 동시베리아-태평양 송유관 건설을 비롯한 사할린 에너지 개발 등 교통과 에너지 분야에서 거대한 프로젝트가 구축, 시행됨에 따라 극동지역은 매력적인 국제 경제 협력 대상 지역이 되고 있다.

그런데 러시아연방 정부가 마련한 여러 가지 극동개발 프로그램들은 극동지역을 수출 주도적으로 발전시킨다는 개념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극동지역이 수출 주도적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풍부한 천연자원과 지리적 위치를 들 수 있다. 극동지역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인 중국과 접경하고 있고 일본, 한국, 미국 등 아태지역 경제 강국들과 해로로 연결되어 있어 지리적인 측면에서도 무역을 통한 경제 발전에 유리한 조건을 갖춘 곳이다. 따라서 유라시아 대륙 교통회랑과 에너지회랑의 기점 또는 종점으로서 극동지역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극동연방관구에는 면적, 기후, 자원분포, 지방경제 구조 등에서 서로 차이가 많은 9개 지방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이 지방들 간의 경제적 편차가 크고 자원 보유 면에서도 서로 차이가 커서 천연자원 수출 중심의 발전이 모든 지방들에 적당한 것이 아니다. 또한 아태지역 국

가들의 수출 지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극동지역이 아태지역에 통합되기 위해서는 제조업 발전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극동지역은 제조업 발전 상태가 미약하며 각 지방 산업단지들 간의 연대와 협력도 부족하다. 또한 인구 감소로 숙련된 전문가와 일반 노동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 외에 아태지역 국가 간 치열한 시장 경쟁, 중국의 극동지역에 대한 수출 증대 가능성, 러시아 기업의 아태지역 시장에서의 약한 입지와 아시아 시장 전문가 부족, 아시아 국가들이 생산하는 천연자원이 극동지역의 자원공급을 대체할 가능성, 아시아 지역에서의 러시아 수출 시장이 중국, 한국, 일본에 편중되어 있는 상황 등 극동지역의 수출 주도적 발전을 추진하는데 다양한 장애 요인들이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극동지역의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극동지역이 가진 장점을 살리는 한편, 동시베리아-태평양 송유관 건설 등의 기회요인을 활용하여 먼저 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수출 주도적 발전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장기적 측면에서 제조업을 육성해 나가야 한다. 이 과정에서 석유, 가스 이외에 연방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자원을 수출하는 기업들 간 상호협력을 강화하여 해외 시장 진출에서 시너지 효과를 달성해야 하며, 지방 별 또는 산업 분야별 특성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고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극동지역 전체의 균형 발전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수출 잠재력이 큰 지방은 수출에, 기타 지방은 내수 시장에 집중하도록 조정하고 지방 간 협력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수출 발전과 더불어 파트너 국가들과의 문화교류를 활성화하여 심리적 장벽을 제거하고 상호이해를 심화시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 참고문헌 |

- 안성규. “아시아~유럽 8000km 단축 선박 운항 3년새 24배로 경증.” 『중앙 SUNDAY』. 2013년 1월 4일.
- 우평균(2010). “러시아 극동개발 프로그램과 한·중·일의 정책: 현황 및 한국의 방향성.” 『슬라브학보』. 제25권. 제4호, pp. 223-255.
- Granberg, Alexander and Alexander Pelyasov(2005). “Programs of regional development revisited: case of the Russian Federation.” *45th Congress of the European Regional Science Association*. 23-27 August. Vrije Universiteit Amsterdam.
- Hill, Terry and Roy Westbrook(1997). “SWOT Analysis: It’s Time for a Product Recall.” *Long Range Planning*. Vol. 30. No. 1, pp. 46-52.
- Helms, Marilyn and Judy Nixon(2010). “Exploring SWOT analysis - where are we now?: A review of academic research from the last decade”, *Journal of Strategy and Management*, Vol. 3. Iss. 3, pp. 215-251.
- Titarenko, M. L.(2008). “Russia’s Strategic Partnerships in Asia : The Asian Dimension of Russian Federation Foreign Policy.” *China Report* Vol. 44. No. 3, pp. 281-295.
- FSSS.(2010). *The Demographic Yearbook of Russia*.
- Weiss, J.(2005). “Export Growth and Industrial Policy: Lessons from the East Asian Miracle experience.” *ADB Institute Discussion Paper*. No. 26, pp. 2-8.
- WTO, IDE-Jetro.(2011). *Trade patterns and global value chains in East Asia: From trade in goods to trade in tasks*.
- Балацкий, Е. В. & Н. А. Екимова(2010). “Финансовая несостоятельность регионов и межбюджетные отношения.” *Общество и экономика*. No. 7-8, С. 101-116.

- (<http://www.kapital-rus.ru/articles/article/176802>. (2012년 4월 5일 검색)
- Вести регион*. November 4, 2011. (<http://vestiregion.ru/2011/11/04/vlasti-poka-bessilny-ostanovit-ottok-naseleniya-s-dalnego-vostoka>. (2012년 5월 12일 검색)
- Горбунов, Н. М. & Г. В. Кръжановская(2010). "Бюджетная обеспеченность субъекто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системе межбюджетных отношений."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ий регион: экономика, политика, право*. Vol. 22. No. 2, С. 65-72.
- Гусев, А.(2011). "«Торговая» угроза территориальной целостности России." *Капитал Страны* (<http://www.kapital-rus.ru/articles/article/194876>. (2012년 4월 5일 검색)
- Деваева, Е. И. & Т. Е. Котова(2010). "Товарные рынки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ориентиры для экспорта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России." *Пространственная экономика*. No. 4, С. 82-105.
- Домнич, Е. Л.(2011). "Экономическое положение отраслей машиностроения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Федерального округа в 2008-2009 гг." *Пространственная Экономика*. No. 2, С. 146-168.
- Ишаев, В.И.(2001). "Концепция развит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России." *Научный доклад на президиуме РАН*. Хабаровск.
- Коваленко, Ю.В.(2006). "Приграничные транспортные связ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России и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го Китая." *Вестник ДВО РАН*. No. 6, С. 21-26.
- Леонов, С.Н.(2009). "Стратегическое развитие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угрозы кризиса." *Пространственная экономика*. No. 3, С. 126-133.

- Минакир, П. & Е. Деваева(2008). "В режиме международной кооперацию." *Эксперт Сибирь*. Vol. 212. No. 24.
http://expert.ru/siberia/2008/24/razvitie_dalnego_vostoka_rossii.
(2012년 12월 20일 검색)
- Минченко, М. Арянин, А. Ноздрин, Н. Щербакова, Е.(2007).
"Проблемы и тенденции развития региональ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в России." *Региональные исследования*.
Vol. 8. No. 5, С. 3-28.
- Михеев, В.В.(2005). "Интеграционное пространство Восточной Азии и Россия." *Пространственная экономика*. No. 2, С. 27-45.
- OILCAPITAL.RU*. April 10, 2012. <http://www.oilcapital.ru/transport/152881.html>. (2012년 12월 14일 검색)
- Попов, А.(2007). "Распутать транспортный узел." *Эксперт*. Vol. 580. No. 39. <http://expert.ru/expert/2007/39/transport>. (2012년 12월 27일 검색)
- Потапов, Л. В. & Н. И. Атанов(2010). "Модернизация, инновации и стратегирование пространственного развития экономики России." *Пространственная экономика*. No. 4, С. 154-162.
- Регион.Бизнес.Партнер*. November 13, 2012. (<http://www.rbp.ru/news/?uid=4702>) (2013년 2월 5일 검색)
- Рогожин, А.А.(2007). "Восточная Азия: внутрирегиональное экономическ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и его политические аспекты." *МИРОВОЕ И НАЦИОНАЛЬНОЕ ХОЗЯЙСТВО*. No. 2. http://www.mirec.ru/old/index.php?option=com_content&task=view&id=38.html. (2012년 12월 19일 검색)
- Stringer*. January 25, 2012. <http://www.stringer.ru/publication.mhtml?Part=48&PubID=19532>. (2013년 1월 10일 검색)
- Терский, М.В.(2010). "Стратегия развит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Бай калъского региона до 2025 года."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ий регион: Экономика, политика, право*. No. 2, С. 7-20.

<http://dvtu.customs.ru>. (2013년 1월 20일 검색)

<http://www.minregion.ru>. (2013년 1월 20일 검색)

http://www.programs-gov.ru/38_2.php. (2013년 2월 5일 검색)

http://www.gks.ru/bgd/regl/b11_44/IssWWW.exe/Stg/d01/04-18.htm. (2013년 1월 5일 검색)

http://www.gks.ru/bgd/regl/b11_14p/IssWWW.exe/Stg/d01/05-10.htm. (2013년 1월 5일 검색)

<http://www.gks.ru/dbscripts/cbsd/dbinet.cgi?pl=7000004>. (2013년 3월 10일 검색)

<http://www.engineeringnews.co.za/article/3d-printing-may-shape-a-new-manufacturing-revolution-2013-01-18>. (2013년 2월 20일 검색)

<http://www.nytimes.com/2012/09/07/world/europe/at-asia-pacific-meeting-putin-focuses-on-the-far-east.html>. (2013년 2월 20일 검색)

| 논문투고일 : 2013년 03월 15일 |

| 논문심사일 : 2013년 03월 29일 |

| 게재확정일 : 2013년 04월 12일 |

ABSTRACT

Journal of Asia-Pacific Studies Vol. 20, No. 1 (2013)

SWOT Analysis on the Export-oriented Development Strategy of Russian Far East

Irina Korgun, Min-Soo Kim

(Institute of Russian Studies, HUFS)

This paper highlights the situation with Far East development which rose to the most important issue on the Russian government agenda. The paper is structured according to the logic of SWOT analysis.

Russian Far East represents a very big territory where economic activity is unevenly dispersed and cannot be balanced in principal. Regions vary in type of resources they have, climatic conditions and geographical positions.

Unfortunately, transport infrastructure does not facilitate trade not to mention development. It is needless to say that state of industry in the Far East has deteriorated during transition years. Despite all the revenues from export of resources all the regions rely heavily on state subsidies for their everyday life. Lack of funds, on one hand, restricts freedom of regional governments to undertake development programs and on the other hand induces unproductive competition between the regions for state financing.

There are numerous threat for development in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 as well. Asian region where Russian Far East is located is highly competitive. It is true both for manufacturers as well as for resource producers. Although Russia does possess a lot of resources, not everybody is ready to buy them. Those export relations that they

have are heavily concentrated on neighboring China and Korea, to a lesser degree on Japan.

In order to overcome existing obstacles, it is necessary to develop such a program that would allow some flexibility and divergence from the national development model; some room for domestic consumption. Also integration into Asia region should proceed not only in the economic sphere but also in culture, science. As an alternative, government should adjust plans for lesser number of population concentrating on industries with higher value-added. It is also important that these policies would not be abandoned after some time as it was the case many times before.

Key words: Russian Far East, Asia, Economic Development, Export Promotion, Integration